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의 의미와 적용

오단이* (송실대학교 초빙교수/SW복지재단 대표이사) · 서봉균** (복지와경제연구소)

I. 들어가는 말

II. 종교개혁의 배경과 의의

III. 현대 자본주의와 종교개혁

1. 종교개혁 이후 자본주의에 대하여
2. 자본주의와 한국 기독교(개신교) 그리고 병폐들

IV. 기본소득에 관하여

V. 종교개혁을 통해 바라본 기본소득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0.04>

* 주저자

** 교신저자

• ABSTRACT •

An Application of Basic Income for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in terms of the Perspective of Reformation

Prof. Oh, Danny (Soongsil University)
Seo, Bongkyun (Welfare and Economy Institute)

In this paper,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is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basic income, and the spirit of the Reformation. First,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direction of social welfare practic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modern society is inevitably accompanied by basic income, and examined how basic income and social welfare practice are related.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universal priesthood and occupation calling in the spirit of the Re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 of basic income when the spirit of religious reform was newly illuminated through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modern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Key words: Basic Income, Reformation, Universal Priesthood, Occupation Calling,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Ich stehe hier, helfe mir Amen!:
하나님 내가 여기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I. 들어가는 말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주체들은 종교개혁에 관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에서도 기독교(개신교)계가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2017년은 루터(M, Luther)가 1517년 10월 25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공포하여 종교개혁의 여명을 밝힌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축하하려고 대다수의 기독교(개신교)관련 학회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키워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500년 전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뿐 아니라 여러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5개의 종교개혁이 있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성공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스칸디나비아 3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으로 확산된 루터 계통의 종교개혁, 스위스 지역에서 일어난 개혁주의 계통의 종교개혁, 영국의 성공회 계통의 종교개혁, 토마스 뮌처나 재세레파 등의 진보 계통의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교회 측의 반종교개혁(the Counter-Reformation)운동을 포함한다.¹⁾ 특히 스위스 지역에서 츠빙글리에 의해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은 예배개혁, 신학교육개혁, 성경번역 등과 같은 교회개혁뿐 아니라 사회개혁도 함께 이루어졌다.²⁾

이렇듯 종교개혁은 개신교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개혁도 다루고 있다

-
- 1) 최윤배, “마르틴 부처의 종교개혁과 선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21집(2008), 73.
 - 2) 임희국, “16세기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사회윤리에 조명해 본 오늘의 시장경제”, 『장신논단』, 제18집(2002), 220.

는 점에서 사회복지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종교개혁의 의미는 두 가지로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Back to the Scripture) 둘째, 교회는 늘 새롭게 개혁(Reformation)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제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사회변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의 디아코니아(*diakonia*)를 바탕으로 한 실천중심의 기독교사회복지 담론을 이루다보니 사회변혁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는 등한시 되어 왔다. 기독교(개신교)가 교회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사회변혁에 까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사회변혁을 위해 기독교(개신교)적 가치나 성경에 나오는 제도(안식년 혹은 희년)를 가지고 사회복지영역에서 정책적 논의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희년제도를 통해 진보적이라고 표현³⁾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⁴⁾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최근 한국사회 화두로 자리 잡은 기본소득제도를 종교개혁이 가지는 의미와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마가복음 12장 13-17절 말씀 등을 통해 기본소득의 정당성 중의 하나인 공유경제적인 측면, 즉 모든 경제적 성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구와 자연, 그리고 천연자원에 기반한다는 관점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종교개혁 사상과의 접점으로 보고 있다.

3) 기본소득은 사실 진보만의 프레임은 아니다. 예컨대 다음(daum)의 창업자인 이재웅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지지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독일 등 많은 국가의 보수진영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이렇듯 기본소득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4)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빛을 완전히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희년에는 경작도 쉬어야 한다.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노예해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안식년과 희년의 휴경(休耕)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남기업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다. 남기업. “농업·농촌·농민에게 선포하는 희년, ‘농민기본소득’”, <http://landliberty.or.kr/archives/2505>

한편, 이영재는 신명기 15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마침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라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에 기본소득은 시기적절한 운동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며, 모든 자연재가 모든 사람의 공동재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며 창조신앙과 기본소득이 점점에 있다고 한다.⁵⁾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도 기본소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본소득자인 강남훈은 만나를 줍거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다며, “포도원 주인은 해질 무렵에 와서 거의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은 ‘이 마지막 사람’(unto this last)에게도 하루치의 품삯을 주었다.”라는 성경구절을 통해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으며,⁶⁾ 이혁배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가지고 청년수당제도의 당위성을 논의하고 있다.⁷⁾

이에 본 연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과 기본소득의 만남, 즉 종교개혁의 의미인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한 사회·개혁적 관점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디아코니아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사회복지를 넘어선 기독교 사회복지의 확장고 더불어 한국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탐색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II. 종교개혁의 배경과 의의

종교개혁을 말할 때 우리는 주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 100여 년 전에 로마 가톨릭교회를 비

5) 이영재, “오경에 나타난 레위인의 기본소득”, 『기독교사상』, 통권690호(2016), 66-77.

6) 강남훈, “왜 기본소득인가?”, 『기독교사상』, 통권690호(2016), 44.

7) 이혁배, “포도원 일꾼의 비유와 청년수당제도”, 『기독교사상』, 통권690호(2016), 80-86.

판하면서, 교회개혁을 외쳤던 개혁자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개혁자가 독일 콘스탄츠에서 순교한 체코의 안 후스(Jan Hus, 1371-1415)이다. 그는 <교회>라는 저서를 통해 교회의 속성, 교황권에 대한 공격, 성서와 교부들에 의지,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저항권을 말하면서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에 도전했다. 이러한 도전은 루터를 비롯한 16세기 종교개혁을 향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다. 루터는 “우리 모두는 후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후스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한 것을 밝혔다.⁸⁾ 후스의 정신을 계승한 루터는 당시 면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교황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교권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중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⁹⁾

사실 종교개혁의 배경은 면죄부 판매로 시발되었으나 그 내면에는 교황청과 교회의 부패로 인한 재정적자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부당한 종교를 넘어선 사회에 대한 개혁의 의미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¹⁰⁾ 또한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독점하는 교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평등 혹은 보편성의 획득¹¹⁾이라 말할 수 있으며 복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와 같은 결로 이해할 수 있

8) 박경수, “안 후스의 <교회>에 나타난 교회개혁 사상”, 『장신논단』, 제47권 4호 (2015), 44-63.

9) 장재웅,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미”, 미주 크리스천 타임즈, 2017년 9월 21일 검색.

10) 실은 면죄부가 아니라 보속을 경감해주는 것(대사부/면벌부)인데 면죄부로 알려져 있기는 하다. 또한 종교개혁 당시 사회는 종교사회로 보아도 무방하다.

11)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만인제사장설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인간해방을 말한다.

다.

평등과 보편성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종교개혁 이전의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서 라틴어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머나먼 길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 라틴어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누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평등사상’과 ‘성경으로의 회귀’라고 귀결 지을 수 있다. 즉,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이는 단순히 종교 내의 차이를 벗어나 농노와 세속귀족 사이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의미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하나님과 성경 이외의 어떠한 권위도 부정하는 것,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누구도 세속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스위스 지역에서 종교개혁뿐 아니라 사회개혁을 외쳤던 츠빙글리는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과 토지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인간은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청지기(Verwalter)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해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로 보았다.¹²⁾ 여기서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과 토지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13-1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가지는 개별적인 경제성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빌려주신 지주와 자연, 그리고 천연자원 등을 기반하고 있으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이해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당위성이 이해된다.

오늘날의 교회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는 과거의 인본주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부흥과 회개(Revival and Repent), 갱신과 회복(Renewal and Recover)의 기회로 삼자는데 의미를 가지므로,¹³⁾ 현대

12) 임희국, 앞의 글, 232-233.

자본주의 사상, 아니 천민자본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개혁은 많은 질문을 준다. 종교개혁이 신학의 중심개념이 실체가 아닌 주체로 바뀌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¹⁴⁾ 자본주의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은 주체로써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을 제시하고 있다.

III. 현대 자본주의와 종교개혁

1. 종교개혁 이후 자본주의에 대하여

스내브리(Snavely, 1969)와 같은 학자는 자본주의 역사를 멀리 그리스 로마시대에서부터 찾고 있다. 물론 당시 시대에는 자본주의의 원리인 이익 동기나 부의 축적에 대한 정당성과 같은 것들은 다 갖추지 못했지만, 자본주의의 요소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쏘바르트(Sombart; 1967)는 중세봉건제의 몰락으로 발생한 자유 사회의 변화와 기술문명의 발전이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근본적인 동기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회변화와 생산수단의 변화가 자본주의의 만들었고 본다. 특히 쏘바르트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초기로 보았다.¹⁵⁾

종교개혁 당시의 이자율 조정과 소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여 종교개혁이 자본주의 윤리 출현에 있어 매개자의 역할을 하였다고도 여기지만 자본주의 자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예컨대 루터의 경우, 상업을 천시하고, 재물을 늘리는 것을 경계했으며,¹⁶⁾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것을 비난하였다.

13) 장재웅,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미”, 미주 크리스천 타임즈, 2017년 9월 21일 검색.

14) 양명수, “자본주의 윤리와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제52권 12호(2008), 59-61.

15) 박충구, “자본주의와 기독교”, 『기독교사상』, 36권 12호(1992), 45.

16) 임희국, 앞의 글, 224-226.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루터 이전의 기독교는 이웃에게 이자를 취득하는 일을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보고 비판적이었다. 반면, 칼뱅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적소유에 대해 반대하거나 재물 획득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으며, 단지 모든 경제활동은 절제하며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칼뱅에게 와서는 관용되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웨슬리의 경우 가능하면 열심히 벌고,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해서 줄 수 있는 대로 모두 주어라하며 소유에 대한 비판보다는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 이는 사적 소유는 인정하지만 사용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전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경제활동은 공공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여러 갈등요소를 지니고 있다.¹⁷⁾

베버는 『기독교(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기독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자본주의 발달 동력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으로 발생한 기독교(개신교)의 윤리로 규정짓고 칼뱅의 예정설을 통해 자본가 계급이 ‘금욕주의’를 바탕으로 작업 노동에 헌신적으로 종사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¹⁸⁾ 사실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에서 노동은 원죄로 인한 고생이라는 저주받은 개념이거나 바울이 경고하는 게으름(*otiositas*)의 반대 개념으로 설정되었으나, 종교개혁시기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성실히 이행할 때 하나의 소명으로 간주하게 된다.¹⁹⁾

한편,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과 자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

17) 박충구, 앞의 글, 54-58.

18) 김명배, “베버의 사상에 비추어 본 한국교회재정문제와 그 윤리적 방안”, 『기독교사회 윤리』 제35집(2016), 107. 그리고 박성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사회비평』 제19권(1992), 175.

19) 정세근, “노동과 치유”, 『대동철학』 제65집(2013), 4.

체제이다.²⁰⁾ 프리드만(M. Friedman)은 자발적인 교환 경제 제도와 사적 소유 제도라는 두 가지 핵심요소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주장하였다. 즉 자본주의 경제활동은 사적 소유와 사적 소유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담겨 있는 것이다.²¹⁾ 따라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과 희생은 사적 소유 재산을 강화하고 빈부의 차이를 확대하는 자본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말하면서 자본주의를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²²⁾

자본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과거 신분제와 같이 대중을 경제적 계급으로 분열시켜 경제적 계급간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의 공동체적 분위기를 파괴한다.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을 넘어 자본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훼손하며,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전락시킴으로써 인간의 숭고한 본성을 비하시켜, 사회 협동적 정신을 파괴한다.²³⁾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있어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진 시스템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분배나 환경파괴, 공공재의 과소공급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²⁴⁾

20)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이면서 정치적 사상이다. 양명수(2008)는 자본주의가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기가 비인격적 장치인 시장을 통해 생산량이 증가하고 사회구성원의 복지가 향상된다고 믿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설명한다.

21) 박충구, 앞의 글, 49.

22) 양명수, 앞의 글, 62-63.

23) 이성호, “존 듀이의 사회 철학: 민주주의, 학교 그리고 자본주의”, 『아시아교육연구』, 제4권2호(2003), 227-228.

24) 박세일,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 『선진한국』, 통권187호(2014), 26-29.

2. 자본주의와 한국 기독교(개신교) 그리고 병폐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을 확대하는 등의 역사적으로 경험한 경제제도 중에서 총량적인 측면에서 가장 신속하게 부의 생산과 축적을 한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중한 가치를 무시 아니 더 나아가 희생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개신교)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선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편승하여 예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²⁵⁾ 한국 기독교는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죄(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기독교의 복음과 등치시켜버린다. 이는 한국사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당시 선교사들을 통해 자본주의 문명의 화려함과 풍요를 접하며 복음능력을 경험하므로 복음을 죄의 구원과 더불어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겼다. 그로 인해 한국기독교는 자본주의를 신앙적으로 정당화하여 복음과 자본주의를 결합하였다. 이러한 것은 한국교회의 성장을 가져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기독교로 바뀌었다.²⁶⁾

이렇게 기독교가 뒤틀려진 이유는 mammon(돈을 숭배하는 종교)이 최대주주로 활약하는 자본주의의 강력한 유혹에 빠진 것이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은 자본주의이고 이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경제는 더 이상 경제영역만을 의미하지 않고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정치, 사회, 문화 등)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독교도 자유롭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성장지상주의와 여러 가지 은사나 물질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

25) 박득훈, “한국교회, 자본주의의 예속에서 해방되어야: 자본주의에 포획된 한국교회의 증상 진단과 처방”, 『기독교사상』, 제52권1호(2008), 35-36.

26) 양명수, 앞의 글, 57-58.

식은 자본주의와 연결될 만한 종교개혁의 요소와 거리가 멀다.²⁷⁾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는 자본주의에 예속되어 여러 가지 병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한국 기독교는 맘몬을 매개로해서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전락시켰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고린도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나누기 위해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기복신앙은 한국기독교의 왜곡을 가져왔다. 둘째, 한국 기독교경영인이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탈취함으로써 교회가 도적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경영자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몫을 사회나 교회로 돌리는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규모를 확장하고 공격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병폐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500년 전 종교개혁을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할 것이다.²⁸⁾

IV. 기본소득에 관하여

전술한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병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시도들이 되어 왔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도로는 대표적으로 19세기 자선조직협회(COS)와 인보관 운동(Settlement Movement) 등을 들 수 있다. 20세기 중반 완전고용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또한 하나의 좋은 예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들이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27) 박득훈, 앞의 글, 33. 그리고 양명수, 앞의 글, 63-66.

28) 박득훈, 앞의 글, 36-49.

기본소득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를 이끌고 있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정의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와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획기적인 소득분배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의 발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용적으로 매우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사상의 뿌리를 찾아가면 토마스 무어(Thomas More, 1478~1535)의 ‘유토피아(Utopia, 1516)’나 토마스 페인(Thomas Payne, 1737~1809)의 복지기금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라면 네덜란드 루뱅대학의 ‘샤를푸르에 그룹(Charles Fourier Collective)’이 1986년에 발행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는 논문과 같은 해 창립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를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⁹⁾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IEN)’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2006년에는 『기본소득 연구』(Basic Income Studies)라는 전문 잡지가 창간되어 이 구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복지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기본소득 세계 총회(The 16th BIEN Congress)가 열리기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소득의 정의에 따르면 이 정의로부터 기본소득의

29) 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2017).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한국사회보장학회 편. 211.

3가지 중요한 특징을 얻을 수 있다.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3가지 특징은 어떠한 정책이 기본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정기성, 충분성, 현금성도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의 원칙이다. 무조건성이란 기본소득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들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형태인 공적 연금은 사전에 기여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가 일을 할 수 있던 시기에 보험료를 낸 경우에 한하여 노년과 은퇴라는 위험이 실제로 왔을 때 연금을 받게 된다.

실업보험은 어떤가? 이 또한 기존에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게 주어지는 공공부조는 일단 공식적인 빈곤선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연계 복지라는 기조 아래에서는 단순히 가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강하게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둘째,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이다. 기본소득에 있어서 보편성이란 오직 시민권에만 기초하여 급여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시민권을 제외하고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자격요건은 없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기본소득은 주어질 수 있다.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기본소득 이상의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대상자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하다.

다만 기본소득을 주로 예산상의 이유로 인하여 특정 연령대에 한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분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통 우리가 사회수당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의 노인이라는 제한이 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된다면 이를 노인을 위한 사회수당 내지는 부분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용어의 차이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셋째, 개별성(Individuality)의 원칙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처럼 가구단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단위로 주어진다. 따라서 특정한 동거형태를 강제하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제도이다. 가구단위로 묶이는 것에 따라 지원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개별 가족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제시된 정기성(Regularity), 충분성(Sufficiency), 현금지급성(Cash based)의 원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기성은 기본소득을 특정 기간 혹은 전 생애에 걸쳐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는 월 단위 지급을 말한다. 이는 인생의 특정 시기에 단 한번 목돈을 지급하고,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 지는 개인에게 맡기는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와는 구분된다.

충분성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이 실질적인 자유를 성취하도록 돕는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에 부합하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충분성의 원칙은 기본소득 도입 초기부터 고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가의 재정상황에 따라 초기에는 약한 기본소득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한 기본소득으로 이행하는 단계적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급이라는 원칙은 기본소득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물지급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충분성의 원칙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기본소득은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은 기존의 시장제도를 인정하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들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체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강요받지 않을 형식적 자유들은 적어도 문명화된 국가들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라는 또 다른 시스템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인간소외의 현상들은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소득과 자산에 따른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차별,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지적 불평등, 노동과 자본 사이의 힘의 불균형, 노동시장에서 임금으로 환원될 수 있는 노동만을 중시하고 가사노동과 같은 나머지 다른 모든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노동소외 현상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익 추구라는 대전제 하에서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기본소득을 통하여 생애의 전 과정에 걸쳐 누구도 최소한의 생계에 대한 걱정 없는 환경 속에서, 원하는 무언가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탈산업화 되고 완전고용이 무너진 현실에서 기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의 사회복지 체계는 그 효용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이 그 대안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이다.

V. 종교개혁을 통해 바라본 기본소득

앞 장에서 서술했지만, 올해는 1517년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며 시작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와 ‘얀 후스(Jan Huss, 1369~1415)’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루터,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 그리고 ‘칼뱅(John Calvin, 1509~1564)’을 거쳐 계속 퍼져나가 16~17세기 유럽 전역에서 꽃을 피웠다.

종교개혁은 단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종교개혁은 중세의 봉건적인 잔재를 털어내고 근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 것이다. 특히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낸 ‘만인제사장’(das allgemeine Priestertum), 독일어 성경 번역, ‘직업 소명론’(Calling)은 종교개혁의 정신과 기본소득의 정신을 잇는 중요한 열쇠로써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만인제사장의 개념은 기본소득이 가지는 평등주의 이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루터는 만인제사장의 근거를 믿음으로부터 설명하였다. 그는 믿음이 곧 제사장이 되는 관문이고, 따라서 믿음으로 인해 신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이라고 하였다. 그가 만인제사장에 대해 최초로 본격적 언급을 한 ‘신약성경에 대한 설교(1520)’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믿음이 전부이다. 믿음만인 진정한 제사장이요, 믿음은 누구라고 제사장 외의 다른 것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은 사제다. 모든 여자들도 사제다. 젊은이 늙은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여자나 소년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떠한 차이도 없다.³⁰⁾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세적 계급주의, 즉 영적 지위가 세속적 지위 위에 있고, 특별히 교황이 그 사다리의 맨 위에 있는 계급주의적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를 던진 것이다. 즉 사제와 평신도, 종교적 직업과 세속적 직업 간에 계급적 차이가 없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신도와 세속 군주와 사제들 사이에 어떤 위계적 차이도 없다는 루터의 발상은 유럽에서 민주사회를 이루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중세시대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에 대한 의식이 더욱 확고해졌다. 만인제사장설은 신앙적인 평등을 넘어 계급타파와 평등사상의 혁명적 진전을 가져왔다.

기본소득 또한 평등사상을 근거에 깔고 있는 제도이다. 누진적인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다음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주는 기본골격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매우 강력한 재분배장치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의 평등주의적 사상은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유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토지나 천연자원과 같이 자연으로부터 온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인류가 지금껏 쌓아 왔고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는 지식들은 모든 인

30) 양금희,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을 통해서 본 평신도교육 개혁”, 『장신논단』 제49집 (2017), 71.

류가 평등하게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인류 모두나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추방령을 내린 이후, 루터가 9개월 동안 바르트부르크성에서 은신하며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당시 루터의 성경번역은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독일 표준어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제 모든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제들의 독점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누구나 성경에 접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당황스러움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옹호자였던 코클레이우스(Cochlaeus, 1479~1552)의 한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인쇄업자들이 루터의 성경을 마구잡이로 찍어 보급하는 바람에 재단사들과 구두장이들, 심지어는 여자와 무식한 자들까지도 독일어를 조금만 읽을 줄 알면 성경을 구해서 열정적으로 공부한다. 어떤 자들은 통째로 외우고 가슴에 지니고 다녔다. 몇 달만 그렇게 공부하고 나면 저마다 학식이 생긴 줄 알아 신앙과 복음에 대하여 사제들과 수사들 그리고 신학박사들과도 논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³¹⁾

지식의 독점이 해체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성경번역은 유럽의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는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미래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지식들이 개발되고 쌓여가고 있다.

31) 정원래, “인쇄술과 종교개혁”, 『개혁논총』, 제40집(2016), 328.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식의 불평등 또한 심해지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교육격차로 인하여 저소득 노동자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는 물질적 뒷받침이 될 것이다. 또한 실업기간에 완충작용을 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과 사회의 지식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은 당시 유럽 전역에 자리 잡아 가던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종교개혁 전에는 성직과 관련된 일만이 귀하고 다른 일은 천하다는 ‘성속이원론’적 생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스위스의 칼뱅은 예정설을 주장하며, 중세 교회의 ‘성속이원론’과 사제주의에 반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모든 노동이 다 거룩하다는 ‘직업소명론(Calling)’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세까지의 직업윤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서구 자본주의 정신이 방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칼뱅의 소명에 대한 견해는 기독교 강요 3권 10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따르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불안해지고 경솔해지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붙잡으려는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만용 때문에 일어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분은 각자의 삶에 맞는 특별한 임무를 정해 주셨다. 그것을 소명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은 주께서 일종의 파수군의 자리로써 그에게 주신 자신만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³²⁾

결국 소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그 분의 선택의 결과이며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할당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속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들이며, 누구도 가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인식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가치 없는 일은 없다는 소명사상은 바로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생각과 일치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점들 중 하나는 인간의 가치 있는 노동을 노동시장에서 임금으로 교환될 수 있는 노동으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가족을 위한 가사노동, 인류와 사회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예술 활동, 사회적 경제에 대한 봉사 등은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으로 교환되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소득은 바로 노동시장에서는 인정받지 못 하지만 사회적이거나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대하여 사회 전체가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최소한의 보상을 해 주자는 주장이다.

VI. 나가는 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2017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대 종파 중 기독교(개신교)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회가 그간 사회참여에는 소홀하고 포교중심의 활동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³²⁾. 이에 우리는 종교개혁을 단순히 종교 분야에만 국한된 사건으로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 종교개혁은 암울했던 중세를 보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32) 이은선, “루터, 칼빈, 그리고 청교도의 소명사상”, 『대신대학 논문집』, 제12호(1992), 403-404.

33) 오단이, 김정선, 하태선,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국제개발영역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7집(2017), 81.

걸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낸 거대한 개혁운동이었다. 즉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었다.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중세의 신분제에 따른 불평등, 세속적인 직업에 대한 차별, 소수에 의한 지식의 독점 등 말 그대로 소위 암흑기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가능해진 사상들, 모두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만인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지식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성경 번역과 인쇄술의 발달, 누구나 각자에게 맞는 역할이 있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제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본소득과 종교개혁은 그 내용과 역할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제 역할을 다한 중세는 내부적 모순을 잉태하여 어차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루터를 비롯한 선각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변화의 시기는 많이 늦어졌을 것이다. 이미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팽배해 있는 지금 기본소득이 과거 500년 전 종교개혁처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기본소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기본소득의 정신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자기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기본소득은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 수단이다.³⁴⁾

34) 2017년 3월 10일 열린 회년포럼

참고문헌

- 강남훈. “왜 기본소득인가.” 『기독교사상』. 통권690호(2016). 44-55.
- 김명배. “베버의 사상에 비추어 본 한국교회재정문제와 그 윤리적 방안.” 『기독교 사회윤리』. 제35집(2016). 103-132.
- 박경수. “얀 후스의 <교회>에 나타난 교회개혁 사상.” 『장신논단』 제47권4호 (2015). 41-67.
- 박득훈. “한국교회, 자본주의의 예속에서 해방되어야: 자본주의에 포획된 한국교회의 증상 진단과 처방.” 『기독교사상』. 제52권1호(2008). 32-57.
- 박성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사회비평』. 제19집(1992). 170-190.
- 박세일.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 『선진한국』. 통권187호(2015). 26-29.
- 박충구. “자본주의와 기독교.” 『기독교사상』. 제36권12호(1992). 43-71.
- 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편.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 221-246.
- 양금희. “루터의 만인제사장 개념을 통해서 본 평신도교육 개혁.” 『장신논단』 제49권1호(2017). 65-91.
- 양명수. “자본주의 윤리와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제52권12호(2008). 56-66.
- 오단이, 김정선, 하대선. “기독교 사회적기업의 딜레마: 국제개발영역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7집(2017). 79-110.
- 이성호. “존 듀이의 사회 철학: 민주주의, 학교 그리고 자본주의.” 『아시아교육연구』. 제4권 2호(2003). 215-236.
- 이은선. “루터, 칼빈, 그리고 청교도의 소명사상.” 『대신대학 논문집』. 제12집 (1992). 395-419.
- 임희국. “16세기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사회윤리에 조망해 본 오늘의 시장경제.” 『장신논단』. 제18집(2002). 219-248.
- 장재웅.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미.” 『미주 크리스천 타임즈』. 2012.
- 정세근. “노동과 치유.” 『대동철학』. 제65집(2013). 1-23.
- 정원래. “인쇄술과 종교개혁.” 『개혁논총』. 제40권(2016). 305-339.

144 『기독교사회윤리』 제40집

최윤배. “마르틴 부처의 종교개혁과 선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21집 (2008). 69-96.

남기업. “농업·농촌·농민에게 선포하는 희년, ‘농민기본소득.’” 2015.
<http://landliberty.or.kr/archives/2505>

논문투고일: 2018년 3월 05일

심사개시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06일

• 국 문 초 록 •

500년 전 종교개혁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제였다. 본 논문은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방향을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접목시켰다. 먼저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은 기본소득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면서, 기본소득과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폈다.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새롭게 조명되는 상황에서 종교개혁 정신에 들어가 있는 만인제사장 개념과 직업소명의 개념이 어떻게 기본소득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현대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기본소득, 종교개혁, 만인제사장, 직업소명, 기독교사회복지실천
